

2025학년도 논술고사



성신여자대학교
SUNGSHIN WOMEN'S UNIVERSITY

인문계열(1교시)

지원학과(부)	성 명	생년월일 (예: 050512)						수험번호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6	6	6	6	6	6	6	6	6	6	6	6	6	6	6	6	6	6	6	6	6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8	8	8	8	8	8	8	8	8	8	8	8	8	8	8	8	8	8	8	8	8
		9	9	9	9	9	9	9	9	9	9	9	9	9	9	9	9	9	9	9	9	9

유의사항

1. 시험 시간은 100분입니다.
2. 답안 작성은 검은색 볼펜(연필 사용 불가)으로만 가능합니다.
3. 답안의 정해진 작성 분량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답안 영역에 작성한 내용만 인정됩니다.
4. 답안에 자신을 드러내거나 알릴 수 있는 표현 및 표시를 하면 안됩니다.
5. 답안지와 문제지, 연습지를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문항 및 제시문

가

㉠영토는 한 국가의 배타적 지배가 가능한 장소로서 공간적 존립기반이며, 국민, 주권과 함께 국가를 구성하는 요소가 되어 국가 정체성을 이룬다. 또한 국민들이 거주하는 물리적 공간이자 경제활동의 터전일 뿐만 아니라 특정한 문화, 언어, 종교 등이 발전·보존된 공간으로, 영토주권은 국민들의 국적, 생활방식 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영토에 관한 국민의 권리를 이른바 영토권으로 구성하여 기본권으로 인정하기도 한다. 영토주권의 이전은 국제관계에서 세력균형의 변경을 의미하므로 모든 국가는 자국의 안전과 번영을 위해 영토 확보에 노력한다. 사람들이 자국의 영토가 가장 넓었던 시기를 영광된 역사로 기억하는 것도 그러한 이유에서이다. 나아가 영토는 그 실제 가치를 떠나 국민감정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특별한 경제적 가치가 없는 작은 땅을 서로 차지하기 위해 수많은 희생을 감수하기도 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규정한다. 이는 1948년 제헌 헌법 이래 수 차례의 헌법개정 속에서도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는 조항이다. 분단 상황에도 불구하고 규범적으로는 한반도 전체를 대한민국의 영토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부속도서의 의미는 대한민국 영토의 한계와 직결되는 것이어서 더욱 중요하다. 그러나 부속도서는 지리학·정치학적 개념이기 때문에 국제법상 개념 정의가 없다. 따라서 한반도의 부속도서가 무엇인지 파악하기 위한 명확한 법적 기준도 존재하지 않는다. 통상 한반도 근해에 위치하여 남북한에 소속된 모든 도서를 의미한다. 한편 조선은 성립 초기 이래 압록강과 두만강을 경계로 인식하고 관리해왔으나, ㉠영토 범위를 구체적·규범적으로 정하고 있지는 않았다. 다만 숙종 때인 1712년 청(淸)과의 경계를 서쪽은 압록강, 동쪽은 토문강으로 한다는 내용의 백두산 정계비가 조선과 청 사이의 국경 합의에 따라 건립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주가 고토(故土)라는 인식, 즉 우리나라를 ‘만리(萬里)의 나라’로 인식하고 있었던 기록들도 있다. 당시 지리학의 제1인자였던 양성지(梁誠之)는 압록강과 두만강을 국경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는 우리나라를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한쪽이 육지와 연결되어 있는데, 그 크기는 거의 만리이다”라고 표현하였다. 또한 노사신(盧思愼)은 『동국여지승람』 전문에서 “우리의 국토는 만리”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서거정(徐居正)도 『동국여지승람』 서문에서 “고려의 서북지방은 압록강을 넘지 못했지만 동북지방은 선춘령(先春嶺)을 경계로 하여 고구려 지역을 더 넘었다”고 쓰고 있다.

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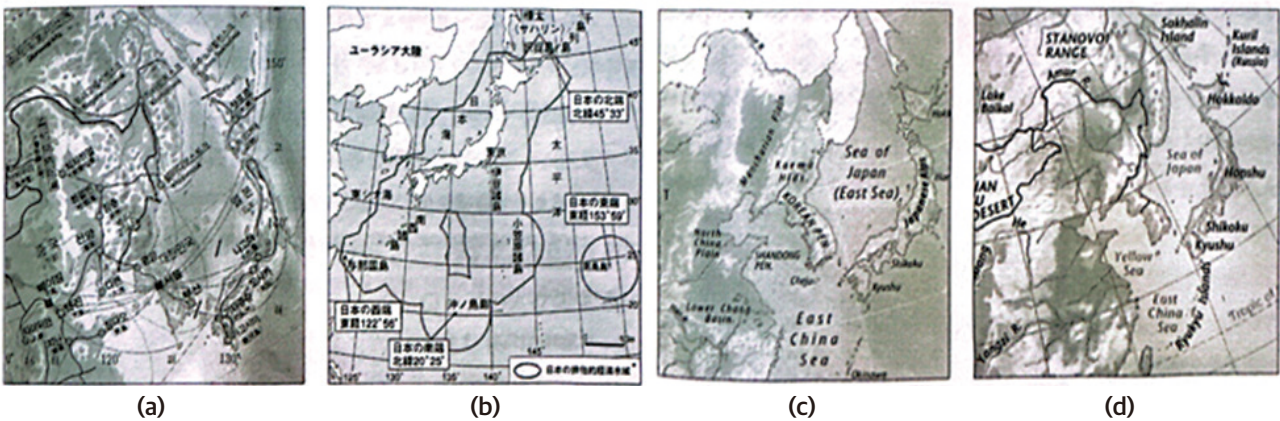
영토분쟁 데이터뱅크인 ICOW(The Issue Correlates of War)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약 109건의 영토분쟁이 진행 중이다. 영토분쟁이란 인접한 국가 사이에 일정한 영토의 주권을 두고 벌어지는 국가 사이의 국제 분쟁으로, 대표적으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카슈미르(Kashmir) 분쟁이 있다.

우크라이나는 구소련에서 떨어져 나간 15개 국가 중 하나로 이들은 모두 민족적 근간을 키예프 루스(Kievan Rus)라고 생각하는 국가들이다. 러시아 입장에서 이들 구소련 국가들이 자국의 영향권 아래에 있는, 혹은 영향권 아래에 있어야만 하는 국가들인 것이다. 하지만 최근 우크라이나는 서방과의 우호관계를 확대하고 발트 3국에 이어 나토(The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NATO) 및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에 가입하고자 하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동쪽으로는 러시아, 서쪽으로는 나토 및 유럽연합 회원국들과 국경을 접하는 매우 중요한 지정학적 위치에 있으며, 흑해와 아조프해(Sea of Azov)에 접하고 있어 군사 전략적으로도 중요한 위치에 있다. 이로 인해 러시아 입장에서 우크라이나가 어느 진영에 서는가에 따라 세력균형이 완전히 바뀔 수 있기에 이들을 자유롭게 내버려둘 수 없는 것이다. 이에 러시아의 2014년 크림반도 합병, 돈바스(Донбас) 전쟁, 2022년 우크라이나 침공 등의 분쟁이 전개되어 오고 있다.

마찬가지로 카슈미르 지역은 인도와 파키스탄이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는 지역으로 오랫동안 분쟁의 불씨로 여겨지는 곳이다. 카슈미르 지역은 인도의 북부, 파키스탄의 북동부, 그리고 중국의 서부와 경계를 이루는 지역으로 히말라야 산맥의 비경을 품고 아름다운 경관을 뽐내는 ‘행복의 계곡’, ‘지상의 낙원’이라고 불렸던 땅이었다. 하지만 이 지역은 지난 60여 년간 종교분쟁으로 얼룩져 주민, 역사, 문화, 그리고 아름다운 자연환경이 무차별적으로 파괴되었다. 인도는 영국으로부터 독립할 당시 종교에 따라 힌두교(인도)와 이슬람교(파키스탄)로 분리되었다. 하지만 카슈미르는 전체 면적의 3분의 2 이상이 인도령이지만, 인구의 60%에 해당하는 500만 여명은 파키스탄과 연계가 있는 이슬람교도로 구성되어 분쟁의 실타래가 더욱 복잡해졌다. UN의 중재로 인도와 파키스탄 사이에 통제선이 설정되었으나 양국의 소규모 교전은 계속되고 있다. 카슈미르 분쟁이 단순히 양국 간의 종교·영토분쟁으로 여겨질 수 있지만, 더 나아가 이들은 중국과 아프가니스탄, 구소련 영역에까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지역으로 미국-러시아-중국의 대리전 분쟁으로까지 이어져 복잡한 국면으로 흘러가는 양상이다.

다

지도는 객관적 정보를 제공하는 시각 자료로서의 역할을 넘어 정치적 패권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대륙이나 세계지도는 국가 영역의 범위와 주권을 주장하는 데 사용된다. 영토와 영해 지도를 제작하고 특히 지도 상에 자국에서 명명한 지명을 기입하는 행위는 자국의 관점을 제시하고 관철하겠다는 정치적 의도를 내포하기 때문이다. 다음 [그림 1]은 동해 지명 표기에 작용한 서로 다른 권력의 양상을 보여준다. (a)는 한국에서 발간한 중학교 사회과 부도의 지도이고, (b)는 일본의 한 고등학교 지리 교과서에 실려있는 지도이다. (c), (d)는 영어권의 대학 교양용 세계지리 교재에 실려있는 지도이다. 동해라는 동일한 공간을 대상으로 한 지도이지만, 동해 지명을 비롯하여 국경 표시가 서로 다를 수 있다. 특히 (b)는 일본의 제국주의적 권력과 패권 의식을 강하게 반영하면서 자국의 영역 이미지 중 보여주고 싶은 것만을 보여주고 그렇지 않은 것을 감추는 교육용 지도로 자국 영역의 범위와 주권을 주장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



[그림 1] 동해 지명 표기와 관련한 지도

이와 달리 일본의 고지도에는 독도가 조선에 속하는 것이 명시된 경우가 있다. [그림 2]는 임진왜란 당시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의 명령으로 제작된 <조선국지리도>에 속한 <팔도총도(八道總圖)>이다. 이 지도는 울릉도와 우산도(于山島, 오늘날의 독도), 그리고 대마도를 조선의 영토로 명시하고 있다. 또한 [그림 3]은 1785년 에도시대 경제론가인 하야시 시헤이(林子平)가 작성한 <삼국첩양지도>의 프랑스어판이다. 이 지도에서는 독도가 울릉도와 함께 한반도와 같은 색으로 표시되어 있다. 대마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그림 2] 조선국지리도 중 팔도총도



[그림 3] 삼국점양지도(프랑스어판 일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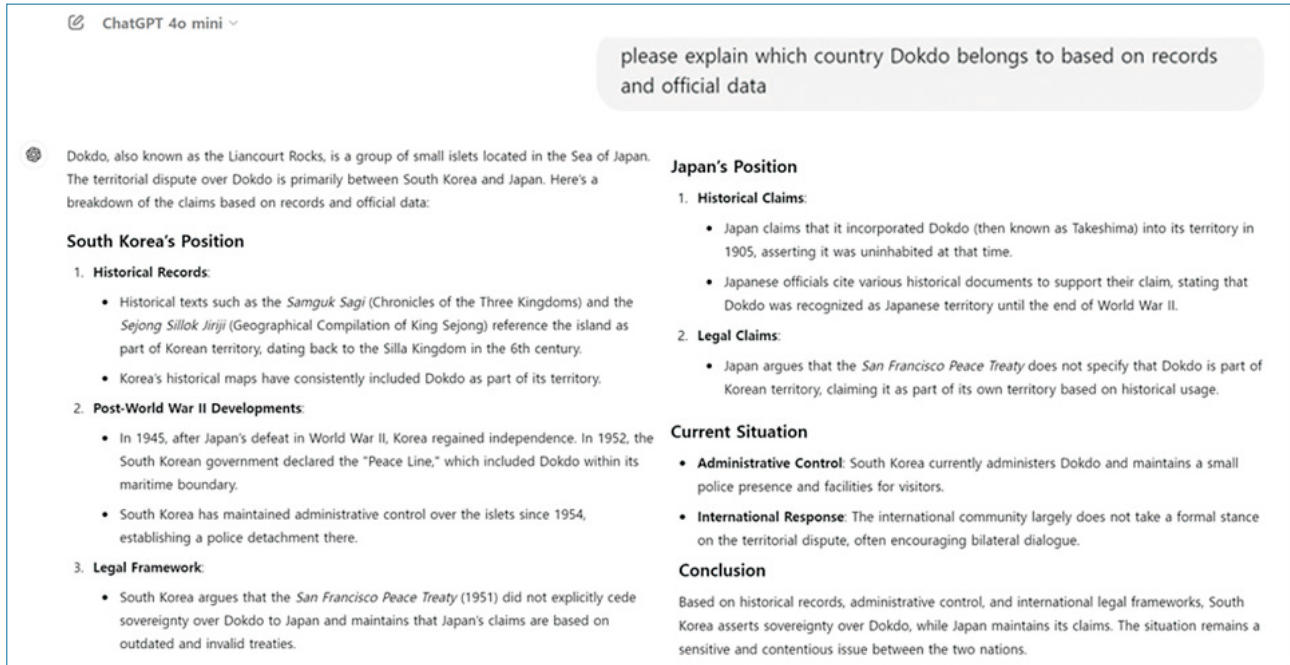
라

고지도나 역사적 기록은 영토분쟁에서 영유권의 증거로 자주 제시된다. 그러나 국제재판에서 고지도나 역사적 기록이 직접적인 증거로 활용될 가능성은 낮다. 특히 국제사법재판소(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ICJ)는 고지도에 대하여 다른 증거를 통해 이미 도달된 결론을 확인하거나 지지하는 것 이상으로는 법적 가치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한다. 고지도의 가치는 제작 주제, 목적, 연도, 내용적 정확성, 제작 기법의 과학성 등 여러 가지 요소에 의하여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실제로 영토분쟁 지역에 관해 재판에 제출되는 고지도들은 서로 모순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사례가 많다. 따라서 고지도는 국제재판에서 영토의 권원(權原)을 확립하는 법적 효과가 있는 문서로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고지도의 증거가치가 낮다는 것은 사법(司法)절차를 전제로 하는 것이다. 영유권이 항상 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2006년에 이미 우리 정부는 동해에서의 해양관할권에 관한 한일 간의 갈등이 UN 해양법 협약상의 강제적 분쟁해결절차에 회부되지 못하도록 적용배제선언을 한 바 있다. 즉 우리 정부의 동의 없이 독도 영유권 문제를 국제해양재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는 의미이다. 이는 모든 영유권 문제를 법적 분쟁 또는 사법 판단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다는 것을 뜻한다.

마

한국과 일본 간 독도에 대한 영유권 분쟁 이슈는 오랜 기간 지속되어 온 논쟁이다. 2024년 1월에도 일본 외무상이 연례 외교 연설에서 우리 영토인 독도에 대해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주장함으로써 망언을 지속하고 있다. 실제로 일본은 너무나도 당연한 대한민국 영토를 몇 가지 주장을 가지고 분쟁지역으로 바꾸고, 세계 여론을 왜곡된 방향으로 형성하려 시도하고 있다. 독도가 어느 나라의 영토인지에 관해 ChatGPT 4.0에 물어본 결과는 [그림 4]와 같다. ChatGPT는 우선 한국의 입장에 관해 다음과 같이 답한다. 첫째, 삼국사기, 세종실록지리지, 조선시대 지도 등 여러 역사적 기록에서 독도가 한국의 영토로 표기된 사례가 한국의 독도 영유권에 대한 근거이다. 둘째, 근대 이후 행정권 행사 측면에서도 1952년 평화선 선언, 1954년 독도 내 경찰 배치와 주민 거주 등의 실효적 지배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 역시 그 근거가 된다. 셋째, 1951년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 의하면 일본이 표기한 영토에 독도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도 그 근거이다. 다음으로 일본의 주장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이 답한다. 일본은 17세기 초부터 독도를 인식하고 있었고, 1905년 독도를 편입하여 '다케시마(竹島)'로 명명했으며,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서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포기한 것이 아니므로 독도가 일본의

영토라고 주장한다는 것이다. 즉 ChatGPT는 한국이 역사적·법적 사실 및 현재의 실효적 지배를 근거로 독도를 자국의 영토로 보고 있는 반면, 일본은 역사적 배경을 바탕으로 반박하고 있다고 결론을 내리며, 이 이슈가 여전히 양국 간 역사적·정치적 요인에 따라 논쟁 중에 있음을 시사하였다.



[그림 4] ChatGPT 4.0 검색 결과

《문제 1》

제시문 <가>에 기술된 ㉠의 특징을 설명하고, 이를 토대로 제시문 <나>의 두 사례가 가진 공통점을 서술하시오. (900±100자)

《문제 2》

제시문 <마>의 현상을 설명하고 이를 제시문 <다>와 <라>에 근거하여 진단한 후, 그것을 바탕으로 제시문 <마>의 현상에 대한 바람직한 대응 방안을 서술하시오. (900±100자)

2. 출제 의도

영토는 국민, 주권과 함께 국가의 주요 구성 요소임을 명확히 이해해야 한다. 국민으로서 영토에 대한 뚜렷한 인식을 지니고, 국제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영토분쟁의 논란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바른 사고의 정립이 필요하다. ChatGPT 등은 발생하는 정보들을 입수하여 지속적으로 알고리즘을 생산해, 때로는 잘못된 정보를 확산시킬 수도 있다. 역사적 근거와 지도자료 등을 토대로 한국의 영토를 분명하게 설정할 수 있어야 하며, 대한민국의 영토가 더 이상 국제사회에서 논란이 되지 않도록 하는 논리적 사고를 하게 하는 데 출제 의도가 있다.